

농구·축구

8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여자월드컵 16강 준비하는 윤덕여호



지소연

조소현

아이슬란드 평가전 해외파 정예 총출동

지소연-조소현 콤비 오늘 합류

대한민국 축구에 훈풍이 불아왔다.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실패의 아쉬움을 딛고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남자 국가대표팀은 불리비아~콜롬비아로 이어진 3월 A매치 시리즈를 산뜻한 2연승으로 장식했다. 최근 A매치 6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감독법 감독이 지휘하는 22세 이하(U-22) 대표팀도 같은 시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020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조 1위로 마무리, 2020도쿄올림픽으로 향하는 첫 판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바통은 윤덕여 감독의 여자대표팀이 물려받는다.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민 태국남자들은 6일(음인)과 9일(충전) '유럽 다크호스' 아이슬란드와 두 차례 친선경기를 펼친다. 월드컵 본선을 앞둔 여자대표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매치업이다.

여자대표팀은 4년 전 캐나다대회에 이은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쉽지 않다. 개최국 프랑스와 A조 조별리그 1차전 겸 대회 개막전에서 격돌하고 이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차례로 맞선다.

그래도 지레 포기할 이유는 없다. 캐나다에서도 한국은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과 경쟁했고 당당히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윤 감독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다. 5만여 만원관중 앞에서 열린 프랑스전만 잘 넘기면 큰 꿈을 품을 수 있다.

'가상의 프랑스', '가상의 노르웨이'로 삼은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위해 윤 감독은 최정예 자원들을 전부 소집했다. 정설빈(인천 현대제철) 등 일부 베테랑들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으나 지소연(헬스 레디스), 조소현(웨스트햄), 이민아(고베 아이나) 등 해외파들이 총출동한다.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3월 30일 선수단 풀 트레이닝이 시작된 가운데 지소연-조소현 콤비가 모두 합류할 2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이어진다. 여자월드컵 최종엔트리 선정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점검무대에서 윤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프랑스에 동행할 수 있다.

윤 감독은 1일 "9일 출전 경기는 평일 낮에 열리지만 많은 분들이 긴 여정을 앞둔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정현 기자

LG, KT 꺾고 '4강 플레이오프' 진출... "전자랜드 나와!"

'확률 100%' LG, 경험에 웃다

〈2승 먼저 거둔 팀의 4강PO 진출 확률〉

조성민 등 베테랑 경험 마지막에 폭발
햄스트링 부상 김시래 집중력도 빛나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KBL 플레이오프(PO) 역사상 2승을 먼저 거둔 팀이 내리 3연패를 당해 뒤집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100% 다음 라운드에 나갔다. 이번에도 어긋남이 없었다.

창원 LG는 1일 창원체육관에서 펼쳐진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6강 PO(5전3선승제) 5차전에서 부산 KT에 106-86의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4강 PO 진출을 확정했다.

LG는 홈에서 열린 1,2차전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손쉽게 4강 PO에 진출해 인천 전자랜드를 만나는 듯 했다. 그러나 KT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LG는 부산 원정에서 KT의 '양궁농구'에 폭격을 당해 3,4차전을 내주고 말았다. 시리즈의 흐름은 KT쪽으로 완전히 기울 듯 했다.

LG는 확률을 믿었고 조성민, 강병현, 김시래, 김종규 등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에 의지했다. 5차전까지 온 이상 전락,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했다. 2쿼터 초반까지 KT가 허훈(21점·5리바운드·6어시스트), 저스틴 텐트몬(21점·3점슛5개) 등의 3점슛을 앞세워 리드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LG는 국내 프로농구 PO 첫 '리버스 스윕'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고비에서 LG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임스 메이슨(18점·7리바운드·6어시스트), 김종규(31점·12리바운드), 김시래(19점·3어시스트)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고, 55-59까지 추격하면서 전반을 마쳤다.

LG의 집중력은 3,4쿼터 들어 더 빛났다. 햄스트링 부상을 딛고 출전한 김시래가 3쿼터에만 8점을 몰아넣으면서 후반 시작 1분45초 만에 역전에 성공했고, 끝까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4쿼터 초반 조성민(14점)의 3점 플레이(레이업슛+바스켓카운트 자유투1구), 조쉬 그레이(21점·8어시스트)의 활약으로 리드를 지켜나간 LG는 89-81로 앞선 경기 종료 5분 36초전 강병현(2점·4리바운드)의 탑인으로 10점차까지 점수를 벌리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경기종료 5분19초전에는 조성민이 3점슛을 꽂아 넣으면서 쐐기를 박았다.

KT는 전반에만 1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양궁농구의 진수를 선사했지만 3,4쿼터 허훈, 랜드리(16점·5리바운드), 양홍석(5점·5어시스트) 등이 급격한 체력 저하를 드러내면서 고비를 넘지 못했다.

승리한 LG는 4일부터 인천삼산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전자랜드와의 1차전을 시작으로 4강 PO에 돌입한다.

창원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LG는 1일 홈에서 열린 부산 KT와의 6강 PO 5차전 승부에서 106-86, 20점차 승리를 거두고 전자랜드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다투게 됐다. 31점을 몰아친 토종 빅맨 김종규(15번)가 확고한 영크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사진 제공 | KBL



경남FC, 경기장 유세로 사상 첫 상별위 회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강기윤 후보 지지 유세)

승점 감점·제재금 등 복수징계도 가능
경우에 따라 시즌운영 큰 타격 될 수도
경남 "징계편 강 후보측 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K리그1 경남FC가 결국 상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경남FC의 상별위원회 회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된 안전이 상별위에 회부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별위는 2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해 규정으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빚었다.

울산·서울 '무패의 전쟁' 첫 판부터 흥미진진

오늘 정규리그 5R 주중 경기 격돌

서울, 박주영·페시치 골 가동 주목
울산, 4경기 3실점 뒷문 단속 관전

'하나원큐 K리그1 2019'가 주중 경기에 돌입한다. 시즌 개막 후 처음 맞는 주중 라운드(정규리그 5라운드)가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그동안 K리그는 주중 경기를 수요일에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요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첫 판부터 흥미로운 대결이 예고됐다. 울산 현대와 FC서울이 2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격돌한다. 두 팀은 4라운드까지 소



울산 김도훈 감독

서울 최용수 감독

회한 현재, 나란히 무패를 기록 중이다. 3승1무의 서울은 가장 먼저 두 자릿수 승점(10점)을 쌓아 선두를 달리고, 울산은 2승2무(승점 8)를 찍어 상주 상무(승점 9)의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교체출전한 손흥민 분위기는 바꿨는데...

토트넘, 31R 리버풀전 1-2 패배

손흥민(27·토트넘)이 교체출전 후 경기 흐름을 바꿨지만 팀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 리버풀전에서 후반 24분 교체출전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다빈손 산체스 대신 투입된 손흥민은

감각적인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바꿔놓았다. 후반 25분 루카스 모우라의 동점골이 터진 이후에는 무사 시소코와 델리 알리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했지만, 동료들이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손흥민의 활약을 살리지 못한 토트넘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 토비 알데레베일트

판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이 있다. 이들 중 복수의 징계도 가능하다. 단순한 경고를 받지 않는 이상 경남 구단은 시즌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 구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구단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현재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팀은 서울과 울산이 '유이'하다. '다덴딩 챔피언' 전북 현대(승점 7), F&A컵 최강자 대구FC(승점 6) 모두 패배를 안고 있다. 특히 서울의 기세가 대단하다. 5득점과 함께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잔물수비로 초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최용수 서울 감독에게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한 시절을 풍미한 공격수 출신답게 강한 화력을 주문하나 최전방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박주영, 페시치 등 간판 스트라이커 콤비가 아직 골 맛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의 경기력은 만족스럽다. 쉽게 실점하고 승점을 빼앗기던 지난해를 떠올리면 현재 페이스만 유지해도 서울의 지상최대 과제인 '명예회복'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린 명문이 아니다. 도전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매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최 감독의 코멘트가 선수단을 자극시켰다.

올해를 '도약의 시즌'으로 삼은 울산도 K리그 타이틀에 큰 욕심을 보이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달 29일 K리그1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을 펼쳐 제주 유나이티드를 2-1로 제압한 울산은 서울을 밀어내고 일찌감치 선두에 올라선다는 의지다. 아킬레스건은 있다. 브라질 골키퍼 주니오와 '베테랑 미드필더' 김보경이 두 골씩 터트렸으나 4경기에서 3실점이나 허용한 뒷문은 불안하다.

주말 홈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2-0으로 꺾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최근 2연패에서 탈출한 전북은 같은 날 경남FC 원정에서 승점 사냥과 함께 선두권 탈환을 바라보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